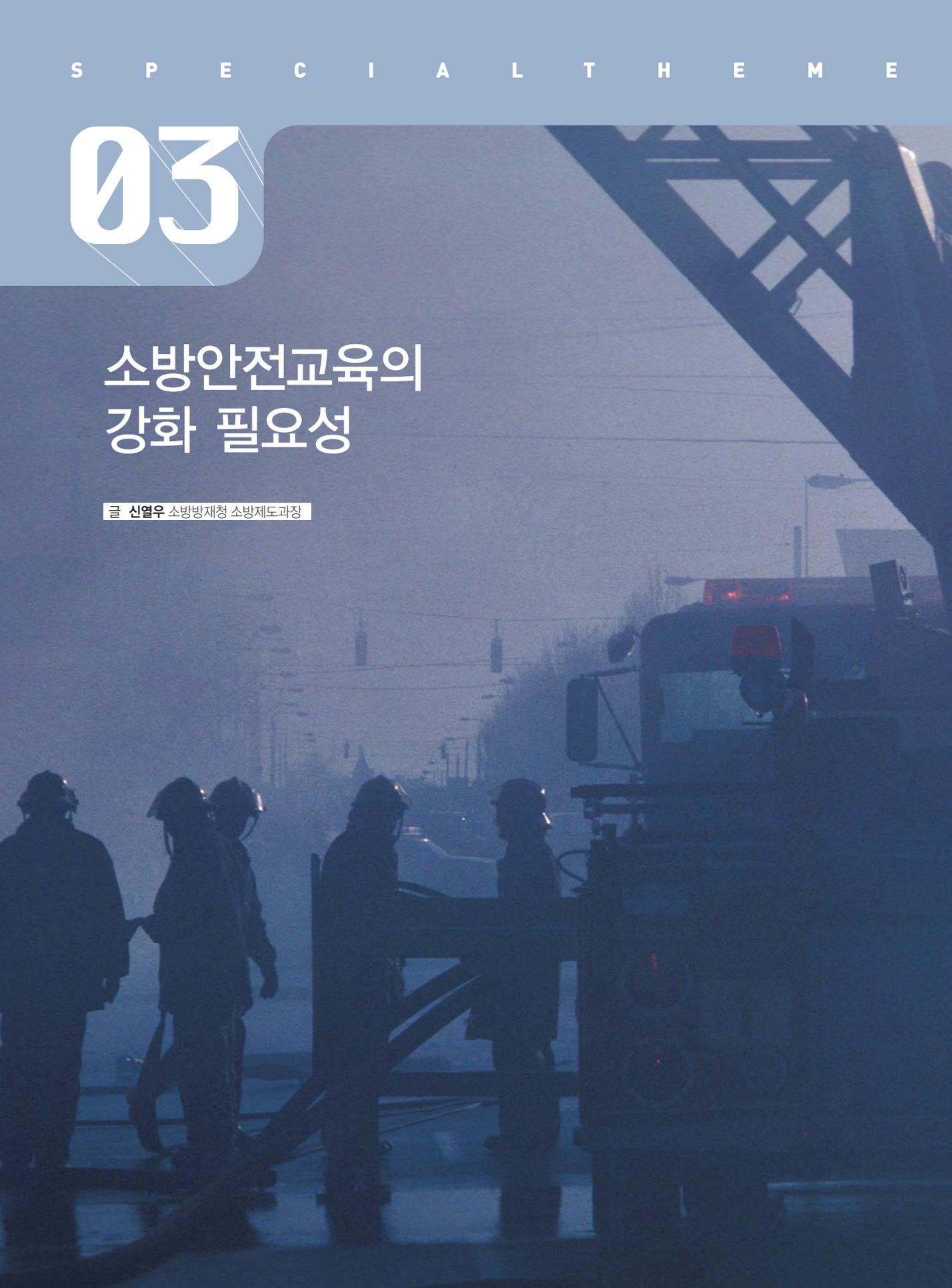


# 03

## 소방안전교육의 강화 필요성

글 신열우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 1. 머리말

안전교육이란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소방행정에 있어 소방업무의 활동영역은 화재예방, 진압, 구조, 구급, 산불진화, 건물붕괴, 지진, 폭발, 화생방, 해일, 풍수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대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불행을 예방하고 안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 속에 언제 어디서나 도처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상존은 안전에 대한 개인 또는 사회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올바른 안전지식이나 태도를 갖추어야 할 소방안전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 2.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소방안전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법 중에는 J.H.Harvy의 3E정책이 있다. 3E정책은 Education(교육적 대책), Engineering(공학적 대책), Enforcement(관리적 대책)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연재난(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설계·시공,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광화문 지하광장에 축구장 몇 배 크기의 슈퍼물탱크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같은 시설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반면, 인적재난(화재, 교통, 전기, 가스사고 등)과 같이 사람의 부주의가 주요원인이 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평상시 교육·훈련만 철저히 실시했다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거나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2010년 한 해 동안 41,863건의 화재가 발생해 1,892명(사망 304명, 부상 1,588명)의 인명피해 및 2,6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05년 대구지하철 화재는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192명의 사망자와 1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로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 미흡과 피난요령을 잘 알지 못한 것도 피해를 크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로 대피해 사망한 사고, 주택화재 시 피난이 가능함에도 미쳐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한 초등생의 사고 등은 화재 시 피난요령을 몰라 인명피해를 가져온 소방안전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3월 산리쿠오키에서 발생한 9.0의 대지진으로 약 30,000여명이나 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 당시 전 세계 텔레비전은 반복적으로 현장영상을 방송했고, 그 비참한 광경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곳곳에 급히 마련된 대피소를 메운 일본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담요를 둘로 찢어 나눠 쓰는 사람들, 식수와 식유를 사기 위해 배급소 앞에 불평 하나 없이 수백미터씩 줄지어 선 사람들, 먼저 왔다고 욕심내지 않고 뒷사람을 위해 자기 먹을 분량만큼만 라면과 주먹밥을 사는 사람들, 문을 닫은 빵집 주인은 피난민들에게 무료로 빵을 배급하는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을 방송보도를 통해 기억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 3. 우리나라 소방안전교육의 실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교육은 어떠한가?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위해 화재경보벨이 울리고 화재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한쪽 복도를 따라 자세를 낮추고 침착하게 피난하는 모습, 초등학교가 복도 끝에 설치된 화재발신기가 화재 발생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누르면 된다는 걸 안다거나, 화재 시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소화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세탁기에 불이 붙자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은 사례를 TV나 신문을 통해 본적이 있다.

이 중학생은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때 소방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소방교육시간에 화재 시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배웠던 것이 생각나 그대로 했다”는 대답을 했었다. 이처럼 우리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또한 산업현장 등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성장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결과중심의 성과주의로 인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면서 안전하도록 지켜야 할 규정을 어기고, 그렇게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안전 불감증'이란 큰 병을 얻었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대형 사고를 유발시켰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에 안전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안전교육을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활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소방안전교육의 강화

소방안전교육은 가정, 학교, 사업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본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자발적이고 참여식의 체험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사고발생 원인별로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례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내용 또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성과 시대성에 맞는, 누구나 쉽게 접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 아동, 장애인,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또는 분야별로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교육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 권역별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도별 확대건립을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의 보급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별 실습장 또는 체험장을 운영하여 전국민 누구나 소방안전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표]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운영현황

구 분	운영 중			건립 중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지 역	서울1(광나루체험관)	서울2(보라매체험관)	대구	임실	천안
개관일	2003. 3. 6	2010. 5. 25	2008. 12. 29	2012년 예정	2013년 예정
사업비	205억원	414억원	250억원	220억원	220억원
연면적	5,742㎡	8,020.77㎡	5,833㎡	5,600㎡	미정
운 영	16명(소방 9,기능 2,민간 5)		21명(소방 16, 용역 5)	미정	미정

\* 이동안전체험차량 : 12개 시·도 21대 운영 중(2개 시·도 보급 예정)

#### 5. 맺음말

유치원이나 학교, 산업현장, 대국민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 및 태도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습관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정착하게 되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예방, 불의의 사고 시에도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중요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직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시 되는 생활 속의 '소방안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